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대구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박주현¹ · 김학희¹ · 김혜정² · 강석선³ · 고은영³ · 김민정⁴ · 김승자⁵ · 김은경⁴ · 김정현¹ ·
 문희정⁴ · 손은주⁴ · 신희정¹ · 우옥희⁶ · 이경은¹ · 이은정¹ · 이은혜⁷ · 차은숙⁸ ·
 차주희¹ · 한부경³ · 한수연³ · 김미혜⁹ · 이원철¹⁰ · 최혜영¹¹ · 정수영¹² · 오기근¹³

¹울산의대 영상의학과, ²경북의대 영상의학과, ³성균관대의대 영상의학과, ⁴연세의대 영상의학과, ⁵서울의대 영상의학과,

⁶고려의대 영상의학과, ⁷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⁸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⁹김미혜유클리닉

¹⁰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¹¹이화의대 영상의학과, ¹²한림의대 영상의학과, ¹³아주의대 영상의학과

목적: 설문지를 통하여 대구 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조기발견을 위한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지역주민을 위한 조기 유방암 무료검진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구 지역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 (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 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령은 33세-74세로 평균나이 53.8세 (표준편차 8.6)였다. 또한 2004년 전남 화순 지역, 2005년 서울 지역, 2006년 부산 지역, 2007년 강원도 춘천 지역 및 2008년 대전 지역에서의 조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유방자가진단은 75명 (75.8%)이 시행하였고 선별 유방촬영술은 81명 (81.8%)에서 받은 경험이 있었다. 유방촬영술의 가장 많은 동기는 정기 검진 (47명, 58.0%)으로 전남 화순 (43%), 서울 (51%), 부산 (47%), 강원도 춘천 (41%) 및 대전 (45%)지역의 결과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p<0.001$), 유방검진의 장애는 시간이 없어서 (27.8%)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방암 지식에 대한 조사에서 정답수는 5문항 중 평균 1.65개였으며, 전남 화순 1.66개, 서울 1.43개, 부산 2.02개, 강원도 춘천 1.92개 및 대전 1.80개와 비교 시 각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지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춘천, 대전, 화순, 대구, 서울 순이었다 ($p<0.001$).

결론: 본 조사는 전남 화순, 서울, 부산, 강원도 춘천, 대전에 이어 여섯 번째로 시행된 설문지 조사이며, 이 결과는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서 론

2008년 10월 15일 발표된 우리나라 중앙암등록본부

의 암발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성에게서 유방암은 200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0.5명의 조발생률을 보이며 갑상샘암에 이어 여성암 2위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발생률 6.8%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1). 최근 각종 언론매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유방암에 대한 교육과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통신저자 : 김학희
 (138-786) 서울시 송파구 아산병원길 86,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Tel. (02)3010-4390, Fax. (02)476-0090
 E-mail: hhkim@amc.seoul.kr

에는 간암, 그리고 2004년에는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 암 검진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행태를 아는 것은 유방암 선별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나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행동에 대한 조사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대한유방검진학회는 2004년에 전라남도 화순 지역, 2005년에 서울 지역, 2006년에 부산 지역, 2007년에 강원도 춘천 지역, 및 2008년에 충남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 시행여부와 지식 정도를 조사한바 있다 (2-6). 이번 조사는 같은 설문지로 대구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5월 16일 대구 경북대학병원에서 제 11차 대한유방검진학회가 개최되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유방암 홍보 및 교육, 무료유방암검진 행사를 시행하였다. 당일 행사장에서 대구 지역 주민 참석자들은 유방암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유방모형으로 자가검진의 방법과 유방 병변의 특성 등을 교육 받았으며 무료 유방강좌를 들었다. 이들 중 40세 이상이고 선별 유방촬영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무료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99명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여성들의 나이는 33세에서 74세로 평균나이는 53.8세 (표준편차 8.6)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 (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 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방암 지식을 묻는 문항은 5개였으며 3문항 이상을 맞추었을 때를 보통이상으로 정의했다. 설문지 내용은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그리고 4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다는 국립 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 (7)을 기준으로 하여 유방 자가진단과 유방촬영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또한 위 자료를 화순, 서울, 부산, 춘천 지역 및 대전 지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t-test, one-way ANOVA 또는 Kruskal-Wallis 검정법을 사용하였고, 유방 촬영술 수검의 장애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중응답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대구 지역 여성 중 유방 자가진단은 응답자 99명 중 75명 (75.8%)이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화순 (73명/131명, 55.7%), 서울 (438명/895명, 48.9%), 부산 (70명/114명, 61.9%), 춘천 (37명/66명, 56.1%) 및 대전 (38명/82명, 46.3%) 지역과 비교하여 유방 자가진단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구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다 ($p<0.001$).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은 응답자 99명 중 81명 (81.8%)이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화순 (70명/128명, 54.7%), 서울 (489명/894명, 54.7%), 부산 (72명/113명, 63.7%), 춘천 (37명/66명, 56.1%) 및 대전 (67명/82명, 81.7%) 지역과 비교하여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전 및 대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검률 또한 월등히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p<0.001$).

유방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47명 (유효치 81명, 58.0%)이었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시행한 경우가 18명 (22.2%), 유방에 멍우리 등의 증상이 있어서가 11명 (13.6%), 주위 사람의 권유가 있어서와 기타가 각각 2명 (2.5%), 언론 매체의 홍보가 1명 (1.2%)이었다 (Table 1). 40세 이상의 여성 (유효치 89명)에서 최근 1-2년 내에 유방촬영술을 받은 경우는 68명 (76.4%)에서 있었다.

유방촬영술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18명에게 유방촬영술의 장애를 묻는 질문에는 시간이 없어서 (5명, 27.8%), 귀찮아서 (4명, 22.2%), 유방암으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 (3명, 16.7%),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1명, 5.6%), 그리고 기타 (4명, 22.2%), 무응답 (1명, 5.6%) 등을 이유로 답하였으며,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라고 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Table

Table 1.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동기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동기	응답자 수 (%)
정기적인 건강검진	47명 (58.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18명 (22.2%)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다른 증상이 있어서	11명 (13.6%)
주위 사람 또는 가족이 권해서	2명 (2.5%)
드라마나 뉴스, 잡지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1명 (1.2%)
기타	2명 (2.5%)
합계	81명 (100%)

2).

유방암의 지식에 관한 5문항은 유방 자가진단의 시기, 유방암 검사를 받는 간격, 병원에서의 유방암 검진의 시작 나이, 유방암의 원인, 그리고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과 같은 양식이었다. 이 중 모두 틀린 경우는 14명 (14.1%), 1개를 맞춘 경우는 34명 (34.3%), 2개를 맞춘 경우는 30명 (30.0%), 3개를 맞춘 경우는 16명 (16.2%), 4개를 맞춘 경우는 4명 (4.0%)이었고 5개 모두 맞춘 경우도 1명 (1.0%)이 있었다. 대구 지역 여성의 평균 정답 개수는 1.65개였으며, 전남 화순 1.66개, 서울 1.43개, 부산 2.02개, 강원도 춘천 1.92개 및 대전 1.80개와 비교하여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산 지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춘천, 대전, 화순, 대구, 서울 지역 순이었다 ($p<0.001$).

고 찰

유방암의 발생률은 1990년대(8)에는 여성암 중 3위였고 2000년(9)에는 여성암 중 15.1%로 2위, 2001년(10)에는 16.1%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발생률 35.5%로 갑상샘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1).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방과 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암 학회 (American Cancer Society)(11)에서는 건강한 여성에서 조기 유방암 진단을 위해 20-30대는 의사에 의한 유방진찰을 3년마다 받고, 40대부터는 유방촬영술을 해마다 할 것을 권고하며 20대부터 유방 자가진찰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

암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다 (7).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방검진 수검률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으나,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연도별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2002년 수검률이 14.7%였던 것에 반해 2007년 29.9%까지 증가하였고 (12), 이원철 등(13)이 1997년 의정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생애 수검률이 21.6%였다. 저자들이 조사한 생애 수검률 또한 2004년 화순 지역 54.7%(2), 2005년 서울 지역 54.7%(3), 2006년 부산 지역 63.7%(4), 2007년 춘천 지역 56.1%(5), 2008년 대전 지역 81.7%(6), 및 2009년 대구지역 81.8%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최근 1-2년 내에 유방촬영술은 받은 경우를 조사한 수검률 또한 2004년 36.5%에서 2008년 65.9%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금년 대구 지역에서도 76.4%였다.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와 수검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자들이 연구대상자 선정을 유방검진학회 기간 동안에 홍보를 통하여 무료 검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방암검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선택편의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택편의가 있었다고 할 지라도 생애 수검률이 2년 연속 80%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그 동안의 정부와 유방검진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르는 국민적 관심의 뒷받침 덕분일 것 것이다.

유방촬영술의 동기로는 정기검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가 80%로 타 지역에서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유방검진의 장애로는 시간이 없어서와 귀찮아서가 50%였고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한 명도 없었던 결과로 미루어 사회적인 장애보다는 개인적인 장애가 더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유방암의 지식 정도는 보통 이상인 3개 이상을 맞춘 경우가 21.2%로서, 여전히 유방암에 대한 지식적인 교육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대구 지역의 유방 자가진단의 경험률은 75.8%로 설문지 이루어진 6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나, 평균 정답수는 1.65개로 역대 도시 중 5위를 함으로써, 높은 수검률과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에 비하여 교육적인 면은 아직 부족하였다. Sadler (14)등은 유방암에 대한 지식부족이 낮은 유방 자가검진율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대구 지역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여전히 유방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상 여성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료 수집방법이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응답자가 직접

Table 2.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장애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장애	응답 수 (%)
시간이 없어서	5명 (27.8%)
귀찮아서	4명 (22.2%)
유방암으로 진단 될까 봐 두려워서	3명 (16.7%)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1명 (5.6%)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0명 (0%)
기타	4명 (22.2%)
무응답	1명 (5.6%)
합계	18명 (100%)

기재하도록 하는 집단 설문지법과 면접원이 질문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설문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응답자가 답을 선택할 때 면접원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는 참여대상자의 기본정보로써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사회 여건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응답률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된 많은 면접원이 설문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조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의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행태와 지식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03~2005년 암 발생률 및 1993~2005년 발생자의 암 생존률 통계 공표. 보건복지부 2008.10.15
2. 김대봉, 김학회,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전라남도 화순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27-31
3. 김대봉, 김학회,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서울 지역 여성

- 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행동.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110-113
4. 양혜린, 김학회, 김대봉,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부산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6;3:121-124
5. 김현수, 김학회, 김대봉,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강원도 춘천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7;4:135-139
6. 이주영, 김학회, 김금원,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충청남도 대전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8;5:116-120
7. 유방암 검진 질지침.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08
8. 제1회 유방암 조기검진 지침 개발 심포지엄. 주관:국립암센터, 한국유방암학회 2001
9.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0.1-2000.12). 보건복지부 2002.3
10.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1.1-2001.12). 보건복지부 2003.2
11. American Cancer Society. ACS Guidelines for Early Breast Cancer Detection. Available at: <http://www.cancer.org> Accessed Apr 5, 2005
12.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정보시스템. 보건복지가족부 2008.12.10
13. 이원철, 노운영, 김영복, 박용문, 맹광호. 제 25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일반연제 32: 의정부지역 암 조기검진 현황 및 관련 특성 분석.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초록집. 1999
14. Sadler GR, Ryu Jin LT, Ko CM, Nguyen E. Korean women: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screening behaviors. BMC Public Health. 2001;1(1):7. Epub 2001 Aug 13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for Breast Cancer Screening in Daegu by Survey

Ju Hyun Park, MD¹, Hak Hee Kim, MD¹, Hye Jung Kim, MD², Seok Seon Kang, MD³, Eun Young Ko, MD³, Min Jeong Kim, MD⁴, Seung Ja Kim MD⁵, Eun Kyung Kim, MD⁴, Jeoung Hyun Kim, MD¹, Hee Jung Moon, MD⁴, Eun Ju Son, MD⁴, Hee Jung Shin, MD¹, Ok Hee Woo, MD⁶, Kyung Eun Lee, MD¹, Eun Jung Lee, MD¹, Eun Hye Lee, MD⁷, Eun Suk Cha, MD⁸, Joo Hee Cha, MD¹, Boo Kyung Han, MD³, Soo Yeon Hahn, MD³, Mi Hye Kim, MD⁹, Won Chul Lee, MD¹⁰, Hye Young Choi, MD¹¹, Soo Young Chung, MD¹², Ki Keun Oh, MD¹³

¹Department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ity of Ulsan,

²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³Sungkyunkwan Univeristy, ⁴Yonsei University,

⁵Seoul National University, ⁶Korea University, ⁷Soonchunhyang University,

⁸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⁹Kim Mi Hye Breast Clinic,

¹⁰Department of Epidem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¹¹Ewha Womans University,

¹²Hallym University, ¹³Ajo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nd screening behaviors for breast cancer in Daegu by survey.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99 inhabitant women, who participated voluntarily in free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age of participant, questions for knowledge of breast cancer, attitude and behaviors related to breast cancer screening. The ages of participants ranged from 33 to 74 years (mean age: 53.8 years). We compared this study with previous studies in Hwasun-gun, Seoul, Pusan, Chuncheon and Daejeon.

Results: Seventy six percent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breast self examination and 81.8%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screening mammography. The most frequent cause of related breast cancer screening was regular check-ups (58.0%) and the most frequent barrier was inconvenience of take time (27.8%). In knowledge of breast cancer, mean value of correct answer was 1.65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ities in terms of knowledge of breast cancer ($p < 0.001$).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essential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plan and develop screening program.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Corresponding author: Hak Hee Kim, M.D.